

기독교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적 기능

최 만 자
(성공회신학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사회교육이란 용어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개념에 중점을 두고 학교 밖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¹⁾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학교교육에도 사회교육적 활동은 포함될 것이다. 여성사회교육은 일반적으로 경제, 직업구조,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한 사회발전에 따라 여성들의 삶의 형태가 가정으로 한정되어 오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참여로 인한 다양한 활동을 갖게되었고 가정생활 자체에도 크다란 변화를 갖게됨으로서 여성들이 이에 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활동을 여성사회교육이라고 한다. 이러한 여성사회교육은 남녀평등한 사회구현을 목표로 하여 사회적 여건들을 개선하고 사회구조와 제도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편견의식을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노력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평등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민주적 평등의식과 여성주체의식 교육을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성은 단순히 주어진 사회구조에 적응하기만 하는 존재로 여전히 비주체적 인간으로 남기 때문

1) 위의 의미로는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고, 영어권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란 점을 강조하여 성인교육이라고 한다. 1982년 12월 31일에 공포된 사회교육법에는 학교교육을 제외한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다. 그러므로 여성사회교육은 여성을 한 인간존재로 자아긍정을 갖게하며 남녀 평등한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게 하고 여성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능력이 보장되는 그러한 교육내용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있어서 여성사회교육적 기능을 고찰하는 일은 바로 기독교가 남녀평등의식과 여성의 자유와 독립과 능력을 보장하는 근거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일이 된다. 이것은 기독교의 여성관을 파악하는 일이기도 하다. 종교의 여성관은 사회적 여성관을 유지시키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한다. 성차별적 종교의 여성관은 사회적 성차별의 정당성을 유지시키거나 보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성의 사회교육적 기능의 근거가 되는 기독교의 여성에 대한 태도를 고찰함으로써 기독교의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적 기능을 살펴보려 한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여성에 대한 태도는 이중적으로 이해된다. 성서에는 만인평등사상을 선포하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여성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구절들도 있다. 구약성서의 창조이야기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1:26-27이 있지만 또 한편에는 여자를 남자와 다르게 보조적이며 이차적인 존재로 창조하였고 선악과를 따먹어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한 원인자라고 하는 창세기 2-3장도 있다. 전자의 이야기는 인간을 해방하고 평등한 사회로 개혁하는 동력으로 작용하지만 후자는 여성을 남성에게 예속된 존재로 규정하는 종교적 정당성을 인류사에 제공하였다. 신약성서에는 복음서에서 예수는 혁명적으로 여성해방적 태도를 보이지만 다른 서신들에서는 성차별적이고 여성억압적인 구절들이 많이 있다. 또 기독교가 전파된 곳에서 초기에는 사회모순의 개혁과 여성해방에 기독교가 공헌하지만 점차 제도화되면서 성차별적이고 교권주의적 종교로 변해간다. 한국교회도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만인평등을 복음으로 전파하였으나 점차로 교회가 제도화하면서 가부장적 질서가 지배하게 된다.

이같은 기독교의 여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는 항상 성서해석과 함께 이루어져서 성서가 때로는 여성해방을 뒷받침하는 경전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성을 억압하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1960년대부터 발전된 여성신학(feminist theology)은 기독교의 본질이 가부장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기독교의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요소들을 비판하고 여성해방적 관점에서 기독교를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즉 여성신학은 성서를 여성해방적 관점에서 새

롭게 해석한다.

본 논문은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기독교 창시자인 예수와 그리고 초대교회의 여성관을 살펴봄으로써 기독교의 남녀평등의식을 고찰해 보고 또 기독교가 전래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기독교의 태도를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독교에 있어서 여성사회교육적 기능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예수와 여성

“예수는 페미니스트였다”(Swidler, 1979-105)는 최근의 한 고백은 예수의 여성에 대한 태도를 단적으로 표현해 준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의 가르침은 내용 면에서나 형식면에서 당시 전통적인 여성관을 벗어나 있다. 예수는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였고 이를 침해하는 사회적 불의들에 대항하고 억압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였다.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을 향한 예수의 해방적 태도를 몇 가지²⁾로 이야기한다면 첫째, 예수의 여성에 대한 해방적 태도는 당시의 유대 랍비문화³⁾와의 대조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랍비문화는 여성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었고 ‘딸에게 토라를 가리키느니 불태우는 것이 낫다’고 하여

2) 여기에 제시되는 내용들은 예수는 여성에 대하여 해방적 태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여러 여성신학자들이 대체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점들이다.

3) 예수 당시의 유대 랍비문화는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질서로 굳어 있었다. 유대교 회당의 예배는 남자들만 참석할 수 있었고 여자들은 칸막이 뒤에 따로 떨어져 있었다. 물론 여자들은 회중의 권위를 위해 토라를 읽을 수 없었다. 식탁에서도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었다. 여자들은 하루 세 번씩 18개조로 된 기도문(쉬모네에스레)을 아이들이나 종들과 함께 외워야 했다(남명희, 1991). 이처럼 랍비적 유대사회에서는 종교적 법적 이유로 남성에게만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자들은 아이들이나 종들처럼 남성의 종속자로서 분류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에 대하여 부정적 표현을 많이 가져 여성을 모욕하고, 비굴하게하는 전통적 규례와 관습이 많다. 여자는 탐욕적이고, 남의 말을 잘 엿듣고, 투덜대고, 질투심이 많은 자로 묘사한다(Genesis, Ralbh 45:5). 바울이 고린도 전서 14장 34절에 명시한 여성의 잠잠할 것과 복종을 요구한 율법이란 결국 랍비적 전통을 참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구약성서는 여성의 복종을 가정하지만 명령하는 율법 규정은 없다.

여성들이 경전을 듣고 해석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리고 랍비들이 길에서 여성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그리고 유대 남자들은 하루에 세 번씩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예수는 이런 사고를 완전히 넘어서고 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 10:38-42에는 예수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사는 마을에 들렀을 때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준비를 했고 동생 마리아는 남자와 함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르다가 동생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예수에게 호소하자 예수는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하였다고 평가하는 내용이 있다. 경전을 배우거나 토론하는 것은 남자의 일이고 음식하는 일은 여자의 일이라는 성별 분업이 확고하던 상황에서 남자의 일에 속하는 말씀을 듣는 일을 택한 마리아를 인정한 것은 당시의 관습에서는 놀라운 일이었다(Ruether, 손승희 역, 1980: 93). 예수는 랍비문화에서는 여성에게 금지된 토라를 듣고 해석하는 영역을 개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성 여성의 일을 나누는 성별분업적 사고를 넘어서 각자의 소양에 따른 일의 선택을 인정하는 성차별적이 아닌 여성에 대한 개방성을 가졌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랍비들이 여성과 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 것과 달리 예수는 사마리아 땅 우물가에서 여성과 깊은 신학적 대화를 나누었다(요한복음 4장). 유대인들이 천시하던 사마리아인이면서⁴⁾ 동시에 여성인 그 사마리아여인을 예수는 동등한 인간으로 받아들였고 나아가 그와 깊은 차원의 종교적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하였다. 이를 본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그것은 여성에 대한 놀라운 해방적 태도였다.

둘째, 기독교 전통은 예수의 제자가 12명의 남자였다고 전하지만 예수는 많은 제자들을 두었고 그 가운데 여성제자들도 있었다. 마가복음 15:40-41, 누가복음 8:1-3, 마태복음 27:55-56 등에는 예수의 추종자로 보이는 여성과 여성공동체에 대한 묘사가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당시의 유대관습을 깨트리고 가정을 떠나 예수와 함께 여행을 다녔던 자들이다. 그리고 남성 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4)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은 사마리아가 앗수르에 의해 정복된 후 혼혈이 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역사적으로 깊은 차별과 멸시를 사마리아인들이 받아 왔다.

등이 중심이 되어 활약하고 있듯이 요한복음서에서 보면 여성제자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등 여성들 또한 중심인물로 활약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여성신학자 Fiorenza(Fiorenza, 1983: 315-333)는 예수의 참제자직을 수행한 이들은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 제자들이었음을 분석해 놓고 있다.

셋째, 예수는 자기교훈의 비유를 남성적 이미지로만 하지 아니하고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호소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는 예수의 가르침에 여성의 경험 이 인간의 보편적 경험의 내용이 되고 있고 여성의 경험이 하나님나라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의 선교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 비유에서도 여성의 일로 비유한다(마태복음 13:31-33, 24:40-41). 누가복음서 11:5-9에 끈기 있는 신앙자세의 비유에서 한 밤중에 빵을 구하러 친구 집에 가는 남자이야기가 있고 몇 구절 뒤에 과부를 중심한 유사한 이야기가 나온다(18:1-8). 누가복음 15장에는 목자와 아버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강조한다. 그러나 동시에 잃어버린 동전을 열심히 찾는 한 여인으로도 하나님을 비유한다. 남성 청중들 특히 남성지배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청중인 상황에서 여성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은유한 것은 여성에 대한 대단한 긍정이며 여성의 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보여준 것이다.

넷째, 예수는 당시의 남성중심적인 사회적 관습을 거부하였다.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남자가 마음대로하는 법을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였고(마태복음 19:1-12) 남편에게도 복종의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마가복음 10:11-12). 그의 치유 활동에서도 남녀평등한 모습을 본다. 많은 병든 여인들을 고쳐주는데 12년 동안 혈루병이 들어 고통 당한 여인을 고쳐준다(마태 9:18-26, 마가 5:24-34, 누가 8:40-56). 이 혈루병은 부정환 병으로 취급되어 그 병이 든 자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했는데 금기를 깨고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을 오히려 회복시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여 사회적 관습을 넘어선다.

예수는 그의 활동을 통해 수시로 남녀의 평등한 인간성을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예수의 긍정적인 여성관은 가부장적 문화에 젖어 있던 그의 남성제자들이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고 강력한 것이었다.

그런데 랍비문화의 대조에서 예수의 이 같은 여성해방적 태도를 근거로 하여

‘기독교 여성은 해방적’이고 ‘유대교 여성은 억압적’이라는 단순한 도식을 성립시키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 있다. Brooten(Brooten, 1985: 65-91)에 의하면 유대교의 여성관을 유대교 경전에 나와있는 구절에 의지하여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며 경전의 여성관은 남성들이 희망하는 여성관을 적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여성의 삶의 상황과 연결 없이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대 여성들의 실제 삶은 경전보다 훨씬 해방적이며 실제로 회당의 회당장도 있었고 경전보다는 훨씬 활발하고 자유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성서에 등장하는 해방적 삶을 하는 여성들은 바로 유대인 여성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예수는 여성에 대하여 해방적 태도를 보이셨고 그렇게 살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Ⅲ. 초대교회와 여성

1. 원시 교회와 여성 - 남녀 평등한 공동체

기원 30년경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 초기 기독교는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활동과 헬레니즘 문화의 세계로 선교를 확장하여 나간 사도 바울의 복음운동이 동시에 전개되어 나갔다.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사건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원시교회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여성들을 내세운다. 기록상의 차이를 가지기는 하지만 4복음서 모두 여성들이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거나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자제자들에게 부활을 전언하고 있다. 당시에 여자들은 법정에서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하던 사회관습에 비추어 보면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발생기원의 증인을 여성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다.

이렇게 시작한 원시 기독교 공동체는 사회적 약자의 해방을 선포하며 모든 계층을 포괄한 예수정신에 입각하여 포괄적인 평등한 공동체 형태를 자연스럽게 이루었다. 그래서 사회 주변으로 밀려났던 자들이 그 공동체의 중심에 들어왔다. 어린 아이, 종, 세리, 창녀들이 하나님나라에 먼저 들어갈 자들이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역전되어 ‘으뜸이고자 하면 꼴찌가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

어야 한다’(마가복음 8-10장)는 새로운 질서의 기준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다. 따라서 여성도 동등한 구성원이며 지도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새로운 인간성으로 변화된 무리들로 이루어 졌다. 이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며 이 영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관계에 선다는 것이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교회의 직분이 성에 의해 나누어지지 않았다. 다만 영으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행해지는 그 능력에 따른 활동을 하여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을 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고후 5:17) 바로 새로운 종교로서의 크리스찬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 영으로 충만한 평등한 공동체 안에서 여성들은 그들이 받은 은사대로 자유롭게 많은 역할을 감당한다.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제자로 혹은 사도로 예언자로 활동하였음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로마서 16장, 빌레몬서 2장등)에는 초기교회의 선교 활동에 역할을 하는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하며 다른 남성 사역자들과 동등한 관계호칭을 쓰고있다(MacHaffie, 1986: 24).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에 버금가는 예수로부터 인정 받는 여성제자이다. 2세기의 성서주석들이나 9세기에 쓰여진 그녀의 삶에 대한 이야기에서 ‘사도’로 묘사되었다. 또 카톨릭의 주류에서 이탈한 집단에서 쓰여진 피스티스소피아(Pistis Sophia)와 마리아의 복음서(Gospel of Mary) 등의 문서에서는 초대교회의 주요한 지도자로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보다 더 중요한 인물로 막달라 마리아를 그리고 있다(Machaffie, 1986: 18).

원시교회는 처음에 가정교회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은 기독교의 시작에 많은 여성들의 역할과 지도자적 역할을 한 흔적들이 많음을 시사한다. 여성은 교회 발전과 개인집의 새 회중조직에 깊이 연관되어 많은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여성들은 가정교회들에 토양을 제공하였고 부유하고 저명한 여성인사의 경우 몇몇 공동체에 편의를 제공 하고있다. 사도행전 16:14의 리디아, 골로새서 4:14 님파-그녀의 집, 사도행전 12:12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리고 빌레몬서의 가정교회의 지도자였던 우리의 자매 암피아라고 인사하는 구절 등이 있다.

사실 초대교회의 발전에 여성이 수행하였던 역할은 훨씬 더 광범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들은 그 공동체에 완전한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을 것이다. 할례

받은 남성이 구성원인 유대 회당과 비교하면 매우 다른 모습의 여성참여를 추측할 수 있다. 초대교회에서 여성은 복종적이거나 의존적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은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다. 데살로니가 전서 5:12에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성동료도 언급한다.

교회가 좀더 발전된 후에도 여성들의 역할은 계속되었는데 성례전의 집행이나 예언자 역할 그리고 여성집사로 안수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MacHaffie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MacHaffie, 1986: 24).

초기의 교육지침서와 교회교단의 문서는 물론 2세기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의 저서에서 여성들의 성례전 집행이나 예언자역할의 행위에 대하여 계속 비난을 퍼붓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는 아마 남성 목회자들의 그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계속 그런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도교훈](Didascalia Apostolorum)(A.D. 200-250 사이에 시리아에서 쓰여진 교회질서에 대한 책)과 [이집트 교회의 규정](Apostolic Church Order)(A.D. 300년경에 이집트에서 쓰여진 교회실제 운영을 위한 문서)과 같은 소책자들에는 공식적으로 여성들이 세례를 주거나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지위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 없으며,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 연설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였다. 그리고 여성들이 신앙에 대해 기록조차 할 수 없게 하였다. 저술행위는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기에 영의 은사에 따라 나누던 역할들이 점차로 성을 기준으로 한 구분에 의하여 여성들의 활동은 제한을 받으며 따라서 여성들은 남성에게 지배를 당하는 2차적 존재로 그 위치가 하락하여 가는 과정이 나타난다.

2. 확장되는 교회와 평등정신의 수정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교인으로 가입하게 될 때 그 세례의식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가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라는 신앙고백을 가진 것으로 보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낸 갈라디아서 3:28에 이를 인용하여 기독교의 정신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이미 인

종차별 계급차별과 함께 성차별을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를 공동체의 실제 규범의 하나로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바울도 이를 승인하여 공식적인 기독교의 규범으로 인식케 만들었다. 이 문장은 당시의 유대인의 질서와 대비해 볼 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얼마나 새로운 질서를 찾았는가를 보게된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유대인 남자들은 하루에 세 번씩 자기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였다.⁵⁾

이같은 유대 랍비적 가부장적 질서와 명백하게 차별성을 가지면서 인종과 계급과 성의 평등을 선포한 기독교는 그러나 점차로 자신 안에 가부장적 질서를 수용하면서 초기의 평등정신을 수정하고 있다. 여성신학자 Fiorenza(Fiorenza, 1983: 205-235)는 갈라디아 3:28에 나타난 평등정신이 바울서신 일부와 후기의 서신들에서 수정 변형된 것을 밝혀내었다. 그 변형은 1차 고린도 전서 11장 2-16에서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3:28의 마지막 짝말인 남자와 여자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고린도 공동체 안에서의 여성들에 관한 바울의 입장을 확실하게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예배집회에서 여성예언자들의 행동에 관한 곧 예배시에 머리에 너울을 쓰는 문제를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이라는 남녀 지배-종속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말함으로써 오늘날까지도 여성을 성서의 권위로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증빙문서가 되게 하였다. 이처럼 갈라디아 3:28에 나타난 평등정신이 바울에 의하여 약간의 수정을 거친 뒤 바울 이후 후계자들에 의하여 가부장적 구조로 전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2차 변형은 대체로 기원 80-12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 성서에 있는 가정 규례들에서 나타난다. 이 규례들은 갈라디아 3:28을 수정하면서 점차적으로 가부장적 질서를 확립하는 규례로 바뀌고 있다. 골로새서 3:11은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시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로 바뀌면서 그 다음 3:18-4:1로 이어지는 규례들이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질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내가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이 되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5) 당시 그리스 문화권의 남성들도 유사한 표현으로 그러한 정서를 표현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의 세계가 가부장적 남성중심적임을 드러낸다.

되신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기를 꺾지 말아야 합니다. 종이 되신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 이것은 신약성서 안에 있는 가장 명확한 가정규례의 최초 형식이다.

또 베드로 전서 2:11-3:12에 나오는 가정규례는 갈라디아서의 세 쌍들의 구조를 가지지 않고 다만 종들, 남편들과 아내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가정의 멤버들의 종속적인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 규례들은 국가에 관한 의무들, 가정에 관한 의무들, 결혼에 관한 의무들에 관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어 인간적 통치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면서 시작하고(2:13-17), 그 다음에 종들이 흑심한 또 불의한 주인들에게까지도 복종하도록 권면하며(2:18-25), 크리스찬 아내들이 그 남편들에게 자신들을 복종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복종의 윤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비록 그 남편들이 이교도이고 또 말씀에 대해서 불복종함으로써 크리스찬 공동체에 반대하더라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다(3:1-6).

이러한 수정과 변형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이방종교의 예배와 다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단정한 머리모양을 요구하였거나 또 소아시아나 그리스-로마 세계로 기독교가 선교를 확장하면서 그 선교지와와의 충돌과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적응하는 선교 전략이 필요하였고 그에 따른 신학적 해석을 위하여 초기 공동체의 평등문서를 본질의 훼손없이 수정,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회 형태가 가정교회 중심에서 지역 교구 중심의 체제로 되면서 여성지도력이 제한 당하고 남성 사도중심으로 지도력의 전이가 일어난 것으로 본다(Fiorenza, 1983: 285-293).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예수에게서 혁명적으로 유대 랍비문화를 극복하고 해방적으로 열려졌던 여성에 대한 태도는 초기 평등공동체의 과정을 지나 기독교가 이방사회로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평등질서는 수정과 변질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복종과 순종적인 아내와 어머니상을 요구하고 공적 차원에서의 침묵을 강요하면서 여성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종교로 변하여 간다. 이 초대시대의

태도와 실천양태들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속에서 지속되어 내려와 지금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IV. 한국교회와 여성

1. 한국 초기 기독교와 여성해방

기독교의 전래가 조선조 여성들의 해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다.⁶⁾ 기독교에 의한 조선조 여성들의 해방경험은 조선조의 유교사회에서 여성들의 삶의 상태와의 대조에서 확인될 수 있다. 조선조의 유교사회⁷⁾는 이미 알려진 바대로 철저한 가부장적 위계적, 남성중심적 신분사회로서 ‘천존지비’의 우주원리를 근거로 ‘남존여비’의 사상과 관습을 확정하고 있었고, 이러한 원칙에 의한 여성에 대한 억압은 남녀칠세부동석, 절열관, 삼종지도, 여필종부, 내외법 등과 같은 관습법들을 기제로 하였다. 이러한 조선 여성들에게 기독교⁸⁾는 성과 결혼에 관련된 새로운 질서를 제시함은 물론 여성의 개별 인격적 존재에 대하여도 새로운 이해차원을 보임으로써 여성해방의 길을 보였다. 천주교가 만인평등사상이나 남녀평등사상의 싹을 틔웠고 개신교는 꽃을 피웠다고 하겠다. 이들 해방 경험을 아래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부장제적 유교의 여성관과 남녀관계 이해의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사회

6) 대표적으로 문일평에 의한 평을 보면, 기독교가 여성도 남성과 같이 영혼의 소유자로 보았고, 여성들이 집밖으로 나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고, 남자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고 해외에 유학도 갔으며, 경제·사회적 활동을 함께하였다고 한다. (문일평, 1975: 150)

7) 유교는 사회통치를 위한 이념제시를 중심으로하는 종교로서 통치를 위한 질서의 정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따라서 조선사회는 위계적 지배질서를 철저히 이루었다. 유교는 가족질서를 모든 사회관계에 확대 적용시킨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만자, 1995, “한국그리스도교 여성경험에서본 성서해석”을 참조바람.

8) 여기서 기독교라고 할 때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한 전체 기독교를 뜻하며, 개별화할 때는 천주교와 개신교로 각각 구분한다.

는 여성을 다만 가계계승을 위한 남아생산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생각한 것에 비해 기독교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영혼을 소유한 존재라고 말함으로써 여성이 신의 의지에 따라 창조된 인격적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천주교의 경우 유한당 권씨의 언행실록에 의하면 부부의 관계를 상호적인 인격적 관계라고 하고 또 여성의 존재를 창조주에게서 받은 인격체임을 강조하고 있다(김옥희, 1983: 45-78). 이것은 이전의 ‘내훈’이나 ‘여논어’ 같은 유교적 사고에 기반한 여성 교훈서에서는 볼 수 없는 여성에 대한 근대적 의식이 싹터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개신교에서도 감리교의 「조선그리스도인 회보」(1897. 8. 4)에 실린 ‘부부론’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내실때 남녀를 물론하고 이목구비와 마음을 한가지로 주셨고 남녀는 귀천의 구별이 없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1:26-27에 근거하여 남녀평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장로교의 「그리스도 신문」(1901, 1.3)에서도 “…… 대저 상주(하나님) 사람을 내실때 귀천과 남녀의 등분이 없이 하셨습니다 마땅히 권리를 쫓을 것이요 …… 여자로 하여금 자유케하는 것이 한갓 천리 인정의 당연할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은 세상에 인재가 많이 날 터이로다”라고 하여 여성권리의 천부와 자유와 평등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황해도 평지에서 나온 한 파격적인 주장 곧 “이제는 여자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 부엌에서 밥을 먹지 않고 상을 들고 방에 들어와 남편과 함께 먹게 되었다”는 내용은 당시의 여성들이 처한 상황과 개신교에 의한 남녀관계 이해의 급격한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⁹⁾ 여성들이 갖게된 평등의식은 남녀관계만 아니라 신분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자신의 종을 실제로 해방시켜 교회에 함께 다니는 경우도 있었다(이우정, 1985: 89). 이처럼 평등사상을 얻게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의 형태를 평등하게 바꾸는 해방적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로는 여성들의 성과 결혼관에 혁명적 변화를 주었다. 천주교의 ‘수정생활’의 장려와 별거의 허락, 그리고 여성들의 공동체 생활의 운영과 과부재가의 허용 등은 당시의 유교적 윤리와 판이한 질서를 제시하였다(노길명, 1988: 99, 102). 그 가운데도 동정을 지키는 일은¹⁰⁾ 결혼을 전제로 하는 유교적 남녀관계에 대립하는 일

9) 이 내용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전국여교역자 연합회가 여성안수를 위한 자료 수집에서 찾은 것으로 1897년 7월 1일자 신문에 실렸던 것을 민경배, “한국교회 여성운동사”에서 인용하고 있다.

이었고, 과부의 재가를 적극 권유한 일은 여성에게 씌워졌던 정절 이데올로기로부터 그들의 해방을 의미하였다. 천주교의 이 입장이 나중에 동학이나 갑오개혁운동의 남녀평등사상과 과부재가금지폐지 조항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¹¹⁾ 개신교도 당시의 여성들에게 성과 결혼의 유교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나는 힘을 주었다. 성문제에 관련해 남성에게까지 영향을 준 것은 축첩을 금지한 일이었다. 당시의 개종자들에게서는 첩을 내어 보내는 일이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이었다고 한다. 첩으로 인한 남편과의 갈등과 그 속에서의 고통스러운 시집살이를 청산하고 자신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여 공부할 기회를 갖거나 전도 활동을 하게되는 예들이 많았고¹²⁾ 또 첩생활을 하던 여성들도 그 생활을 청산하고 독립적으로 새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경우도 많았다. 과부재가금지 폐지운동, 인신매매금지, 적서차별 폐지, 조혼폐지, 축첩반대, 공창폐지 등 구습타파 운동들은 기독교에 의한 여성들의 성과 결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촉진시켰고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였다.

셋째로는 여성의 생활공간을 가정을 넘어 사회의 공적영역으로 확대시킨 점이다. 초기 천주교는 미사를 비롯한 신앙집회에 남녀가 동석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내외법’이나 남녀칠세부동석이란 규범이 지배하던 상황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며, 남녀의 평등함을 실천한 태도였다. 더구나 그 여성들 대부분이 양반집 부녀자들이었으니 엄격한 남녀유별의 사회에서 대단한 용기를 가진 행동이었다. 더구나 그토록 엄격한 내외법의 질서를 지키는 상황에서 여성이 이성에게 교리를 전한다는 일은 파격적이었다고 하겠다(김옥희Ⅱ, 1983: 154). 개신교는 1900년까지 교회에 남녀사이에 휘장을 칠 정도로 심각한 내외법이 지배한 상황(주선애, 1978:

10) 천주교는 동정과 불혼을 미덕으로 내세웠고 이일에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참여하였다. 여필종부를 미덕으로 삼아 남편따라 죽기까지 강요당하던 여성들이 결혼자체를 거부할 수있다는 사실이 당시의 사회윤리에 대한 큰 도전이었으며 구습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감을 가질 수 있었다. 유교사회는 동정을 지키는 것을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 교는 부모가 낳아 준 육신을 미워하라고 명령하니 부모를 미워하라는 것이며, 끝으로 동정이 결혼보다 완전하다고 가르치니 인륜을 멸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노길명, 1988: 99, 102).

11) 천주교의 과부 재가 허용은 동학보다 37년 앞선 것이다.

12) 전삼덕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에 관한 내용은 이덕주, 대한 감리교 여성교회사, 서울: 기독교 대한 감리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1991)에 있다.

48-49)에서 여성들이 교회에 출석함은 물론 공적 영역에서 가르치는 존재로 활동하며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화학당 50명 졸업생 가운데 3/1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였다고 한다(윤혜원, 1985: 113-123). 그리고 여성들은 사회역사의식을 갖게 되었다. 교회는 여성들이 조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따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조직을 통하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¹³⁾ 이런 경험을 통하여 여성들은 가사와 자녀 양육만이 여성의 역할이 아니라 사회문제와 민족적 과제에 여성들이 참여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인식에서 ‘송죽회’를 통한 구국운동,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 1919년 3.1. 독립운동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

네 번째로는 여성의 지적, 사회적 능력의 개발과 인정이라 하겠다. 천주교는 초기부터 여회장제를 두었으며, 여성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또 유한당 권씨는 한글 교과서를 번역하기도 하였다. 1800년에는 명도회라는 여성들의 전교활동 조직을 만들었고 여신도 명단이 70여명이 되었으며, 「취회」라는 공동체를 조직하여 혼자사는 여성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하였고, 또 「여인제회」라는 과부모임도 있었다. 남녀교우가 모이는 침례회에서 강완숙은 교리해설과 강론을 하였다(김옥희1, 1983: 151-154). 기독교는 처음부터 교육활동을 통하여 선교의 방편으로 삼았던 바 여성교육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따라서 여성들의 지적능력 회복에 공헌하였다. 교회 사경회를 통한 성경교육도 여성들의 지적능력과 사회적 능력개발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갖는 공간으로서도 기능하였다.¹⁴⁾ 수많은 전도부인(Bible Women)들이 초기 한국교회의 여성지도자로서 맹활약하여 한국교회의 초석을 놓았음은 주

13) 1898년 평양 널다리꼴 교회 여전도회 조직을 시발로 1898년 ‘찬양회’ 조직을 통해 여학교 설치를 위한 상소를 왕에게 올리기도 하였고, 1899년 ‘여우회’가 50여명의 여성들로 조직되어 당시의 축첩제도를 반대하는 연좌데모를 벌이기도 하면서 고종 황제께 축첩 폐지령을 내리도록 상소하였다(주선애, 1978).

14) “.... 실의에 빠진 이는 희망을 찾아 나왔고 박해 받는 이는 동료들로부터 함께 위로를 얻기 위해 나왔다. 교회는 성경반을 통하여 태만한 이가 열심을 갖게 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선 이가 올바른 길로 가게 되며, 복음을 가르치고 설교 할 열정이 생기게 되며, 젊은 여성들은 교육을 돕게 되길 바랐다.”고 말한다(이우정, 이현숙 공저, 1989: 57)

지의 사실이다. 기독교 여성들이 이렇게 교육받고 사회적 활동을 하며 지도자적 역할을 하게 되므로 당시에 ‘찬송가나 성경을 잘 아는 여자가 가장 새로운 사상의 소유자’라고 인정되었고,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은 큰 혁명가라고 보았다(정세현, 1963: 143)

이상과 같이 기독교는 당시의 여성에 대한 유교적 관습과 법의 질서를 흔들고 성과 결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하고 다른 질서 곧 만인평등과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해 등의 새로운 관점을 사회에 제시하였고 이를 수용한 여성들의 삶을 해방적 상태로 이끌었다. 기독교는 여성들로 하여금 자아를 발견하게 하며, 또한 여성들도 능력 있는 존재라는 자각을 갖게 하였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신감을 주어 자유와 해방의 감격을 주었다. 그리고 사회적 동등성을 획득 할 수 있는 가능한 길을 열어 주었다(이우정, 1985).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조선조 여성들에게 여성해방적 경험을 갖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한국교회의 여성교육과 여성사회운동

한국 기독교가 여성해방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무엇보다도 여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것이 큰 요인이 되었다. 한국기독교는 처음에 의료봉사와 교육활동을 선교적 도구로하여 당시의 조선사회에 들어왔다. 기독교는 당시의 사회가 남학여맹의 풍토에서 오히려 남녀병립주의로 여학교를 똑같이 세워 여성교육에 주력하였고 여성교육을 통하여 사회개화를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1885년에 정신여학교 설립을 시작으로¹⁵⁾ 1908년에는 학부에서 인가된 학교가 장로교 588교, 감리교 144교로 합 732개의 소학교와 장로교 15교 감리교 4교의 남녀 중고등학교, 대학 1교를 세웠다(윤혜원, 1985: 113). 그리고 신도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그 자녀들이 입학하게 되었고 여성에 대한 교육열이 점차로 높아져서 1918년에는 여중학생의 수가 800여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기독교의 태도는 유교적 관습에 대한 도전이 되었다. 유교적 관념이 여성들을 가정에만 한정시켜 자유롭게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던 상황에서 교육받을 여학생을 구할 수 없어서 고아원 형태의 서당식 교육을

15) 1908년에 고등여학교령에 의하여 ‘한성관립여학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생겼다. 따라서 기독교 여학교 시작은 그보다 23년이나 앞섰다.

하면서¹⁶⁾ 시작한 기독교의 여성교육에의 집착은 한국여성들을 개화시키고 사회적 지도력으로 배출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여성교육기관으로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의 시작인 이화학당을 들 수 있다.

당시 여성교육의 사상을 몇 가지로 지적해 본다면 첫째는 남녀평등론이고 둘째는 교육구국론이며 셋째는 여성발전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여성교육사상은 실학사상을 뿌리로 하고 기독교의 복음에 영향받은 당시의 개화사상가들¹⁷⁾에 의하여 더욱 강조되었다. 서재필, 유길준과 같은 개화사상가들은 남녀의 동등과 부국을 위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들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여성교육은 일제하에서 여성들로 하여금 구국운동과 여성사회운동을 일으키는 조직력과 지도력의 능력을 갖게 하였다. 여성 직업이 확장되어 전문직과 경제활동에 참여됨은 물론이고 소위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단체활동을 조직 운영하는 사회운동체로 성장한다. 1898년 2월에 양반층 부인들을 중심으로한 순성회는 고종황제에게 여학교를 세우도록 상소를 올렸으나 그 추진이 늦어지자 스스로 학교를 세워 '순성학교'라 한다. 그리고 애국심에 불타는 기독교여성들은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 전국적으로 참가한다. 거액의 국채를 갚지 못하면 국가와 민족 모두가 일본 자본의 노예가 되고 자주적 국권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경제적 애속에서 벗어나려는 운동에 여성들이 대거 참여하였는데 자신의 반지를 빼는 등 폐물을 연납하고 쌀을 모우고 반찬을 줄이면서 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독립운동에도 참여하였는데 1913년 평양 승의여학교의 '송죽회'와 1919년 애국부인회 등은 결사적 각오로 비밀조직체로 활동한 여성단체의 구국운동이다. 3.1운동 당시 여성교육은 기독교 여학교가 주축을 이루었고 근대 지식여성층을 이룬 것은 기독교 학교 졸업생이 중심이 되었다. 기독교 학교가 이 땅에 설립된 지 34년이 되고 정식 졸업생이 각 학교에서 배출되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1919년에는 지식여성들이 각분야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초기 졸업생일수록 기독교 정신과 여성의식과

16) 1886년 이화학당의 스크랜톤 여사는 7명의 고아를 모아 교육을 시작하였고, 정신 여학당의 에러즈도 1887년 제중원에서 데려온 3-4명의 고아로 시작한다. 일신학교(부산 호주선교회), 영화학당(인천 북감리교), 배화학당(남감리교)등도 유사하게 시작하였다(윤혜원, 1985: 114).

17) 개화 사상가들은 경제 개발과 후생의 증진을 도모하였고, 민족자주와 국권의 독립을 강조하였다. 이는 중국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민족 주체의식을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민족의식이 합일화되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1914년부터 이화 대학과 졸업생이 사회에 나왔는데 1925년까지 29명이었고 그중 13명이 해외 유학에서 돌아와 모교에서 일했고 나머지도 다른 분야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윤혜원 1985: 124).

3.1운동 이후 1920년대에는 여성운동이 여성해방을 위한 여성계몽운동, 여성을 위한 사회사업운동으로 전환한다. 1920년대에는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출현하였는데 이는 지식인 여성들의 집단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지식인 여성집단층의 형성은 국내외에서 한국여성교육에 집중하여온 기독교의 여성교육의 영향이 컸다. 대표적인 단체가 YWCA와 기독교 여자절제회 등이다.

기독교의 여성사회교육적 기능은 아마도 이 시대의 기독교 역할에서 뚜렷하게 여성해방적 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이 시대 기독교는 여성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자아발견과 주체적 인간으로 서기 그리고 사회역사의식을 갖도록 교육하였다. 더 나아가 선각적 지식여성들은 암매한 조선여성들에게 빛을 주기 위한 계몽교육운동과 동시에 식민지의 역사를 종식할 수 있는 민족독립을 위한 애국운동을 전개하는 사명감을 가졌다. 기독교의 교육을 통하여 여성들은 사회역사 의식을 갖게되었고 조직하고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능력을 배양하였으며 민족역사와 사회를 개혁하는 힘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독교 교육의 힘에 의하여 교회 내에서 여성들은 여권향상을 위한 투쟁운동을 벌였는데 여성안수 실현을 핵심적 과제로 하면서 교회 내 남녀평등을 위하여 1920년대부터 21세기를 앞둔 오늘에까지 투쟁하여 왔다. 그리고 생활개선과 애국 계몽운동으로 전개되었던 사회개혁차원의 여성운동 또한 선교초기부터 시작되어 1970-80년대의 인권운동의 역사에 참여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생태계 위기극복을 위한 생명운동을 비롯하여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운동의 전개에 참여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교회 여성은 기독교의 여성교육에 의한 영향으로 사회화되고 나아가 사회개혁의 주체적 활동집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3. 조직교회와 여성억압 - 교권의 확립과 근본주의 신학의 여성억압

1907년 조직교회가 시작되면서 성직개념이 확립되고 교회전체를 위계적 구조로

만들어 나가서 하나님 — 남성 성직자 — 남성평신도 — 여성 평신도라고 하는 계급적 관계구조를 이루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같은 성직에서의 소외뿐만 아니라 여성차별 현실은 교회운영 전반에 걸쳐서 나타났다. 특히 임금과 역할에 있어서의 성차별(이우정, 1985: 65-73)은 심각하였고 여전도인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는 그들이 분노를 일으킬 정도였다.¹⁸⁾ 이 같은 성차별적 교회는 그안에 계급적 현상을 가지고 있어 처음의 평등윤리가 이미 무너져 있는 모습이 되었고 여성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종교로 바뀌어졌다. 그토록 여성에게 해방적인 영향력을 미친 기독교가 여성억압적인 종교로 변화된 이유는 유교의 가부장적 질서의 잔재에 잠재된 의식과 서구의 근본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근본주의 신학이 여성억압적 성서해석을 하는 것은 근본주의 신학이 가진 성격에서 비롯된다. 근본주의 신학의 성격은 확일성, 진리의 절대성, 가부장적 가족상의 고찰, 통제적 구조와 가치를 가지는 것 등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근본주의가 갖는 성격 가운데 ‘가족윤리의 강조’가 있는데 이것이 가부장적 가족상을 고착화한다. 따라서 이 안에서는 여성해방의 잠재력은 찾아볼 수 없다. 이 근본주의가 갖는 특성들이 성서해석으로 나타날 때 철저한 가부장적 기독교가 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근본주의 신학에 의한 여성억압은 여성의 성직소외현상을 성서적으로 정당화하는데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933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여성안수 실현’운동은 1934년에는 신학적 논쟁의 차원으로 거론되었다. 여권을 지지한 김춘배목사(성진교회 담임)가 “여자를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것은 2천년전 한 지방교회의 관습이고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라”(기독신보, 977호, 김이봉 재인용)는 역사비평적 방법에 근거한 성서 해석문을 썼고, 이에 총회측의 박형룡 목사는 근본주의 신학적 해석으로 “사도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디모데 전서에 여자에게 교회의 교권을 불허하라는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답하여 여성의 치리권을 절대불가하다고 하여 근본주의 신학의 여성억압적 태도를 드러내었다. 박형룡 목사는 여성들이 봉사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성서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일이나 교권을 가르치며

18) 여성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가 교회가 가진 여성 비하의 여성관을 보여준다. 경성의 전정길 전도인이 “1. 여전도인의 인격을 중히 여기자. 2. 여전도인의 지적 능력을 승인하라. 3. 여전도인에게 사업의 권위를 주자”라는 주장을 한 것을 보면 당시 여전도인을 교회와 남성들이 얼마나 무시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이우정, 1985: 65-73).

처리하는 것은 남자만의 특권에 속하였다는 것이 성경에 가르친 뜻이요 모든 교회가 유구히 인정하여온 신념이라고 하여 성서와 전통에 의한 여성성직불허의 정당화의 논리를 폈다.

위의 여성안수와 관련된 신학적 논쟁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첫째, 근본주의적 성서해석은 성서의 권위로 여성억압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해방을 위한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성서 안에 있는 가부장적 요소까지도 모두 경전의 권위로 인정하여 초자연적 계시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성서의 말씀은 제1원리로서 작용한다. 그래서 성서 안에 있는 가부장적 여성관을 그대로 교회와 사회에 적용한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여성해방에 다대한 공헌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니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할지니라”라는 성서의 여성관에 다시 묶여 봉건사상적 여성관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고 여성들은 또 복종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아온 태도에 제한되어 여성해방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으며(정세현, 1963: 148-149) 결국 모처럼 조선여성을 엮어매었던 봉건적 사슬을 끊는 새로운 윤리를 제시하였으나 또다시 그 봉건적 여성관과 관습에 재편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¹⁹⁾. 그리고 그 원인은 근본주의적 신학에 의한 성서의 해석에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교권과 근본주의적 성서해석은 여성사회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여성의 자아확립과 남녀평등한 민주적 정신에 역기능적 작용을 하고 있다. 여성을 교권에 의해 위축시키고 그 능력을 사장시켰으며 여성을 2차적이며 예속적 존재로 종교적 정당성을 가지고 규정함으로써 열등감을 갖게 하고 그 자유와 능력과 해방을 억제하고 가로막는다. 나아가 여성들에게 복종의 영성을 갖도록 강조하고 억압한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의 여성을 상실하게 한다.

19) 초기 기독교 여성관이 가부장적 여성관으로 재편되는 과정은 성서의 가부장적 여성관을 경전의 권위로 인정한 사실이 주된 요인이지만 동시에 작용되고 있는 요인은 당시의 여성해방의 기준이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여성을 지향하기보다는 적정한 문명의 수준 곧 서구문명적 수준의 여성을 모델로 하였기 때문에 서구의 가부장적 여성관의 산계 안에 여성해방의 형태가 머무르게 된 점도 있다고 본다(김정수, 1988: 70).

V.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예수는 혁명적으로 여성에게 해방적 태도를 가졌으며 초기 공동체에서는 그 당시의 유대 랍비적 가부장적 질서를 타파하고 남녀평등한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 평등 공동체를 이루었음에 비하여 점차로 교회가 조직화되고 선교를 확장해 나가면서 기존의 사회의 가부장적 질서를 오히려 수용하여 자신의 평등 질서를 변형 수정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한 현상은 한국교회의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기독교는 여성에게 해방과 억압의 이중적 기능을 가졌음을 보았다. 이제 여성신학적 인식에 기반한 성서해석과 교육 활동을 통하여 여성해방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이다. 그런데 여성신학적 교육 활동은 평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와 타협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 교권적 교회구조 안에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자체의 갱신 혹은 변혁을 위한 노력과 여기에 개방된 남성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하여 여성해방적 교육의 장을 확장할 것을 희망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옥희(1983). 천주교 여성사 I, II. 마산: 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 김정수(1988). 한말 동학과 기독교 주도층의 남녀평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남명희(1991). 바울시대의 여성. 함께 참여하는 여성신학. 대한기독교서회.
- 노길명(1988). 가톨릭과 조선후기 사회 변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 문일평, 이기백 역(1975). 호암사 논선. 집문당.
- 윤혜원(1985). 기독교 학교와 여성교육. 여성, 깎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노래할지어

다. 한국기독교 백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이우정(1985). 한국기독교 여성 백년의 발자취. 서울: 민중사.

이우정, 이현숙(1989). 한국기독교 장로회 여신도회 60년사. 한국기독교 장로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

정세현(1963). 일제치하 부녀운동 소고 - 민족운동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Vol. II**. 숙대 아시아 여성연구소.

주선애(1978). 장로교 여성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최만자(1995). 한국 그리스도교 여성의 경험에서 본 성서해석. 성서와 여성신학. 한국여성신학회 엮음.

R. R. 류터. 손승희 역(1975). 새여성, 새세계. 현대사상사.

Brooten, Bernadette J.(1985). Early christian women and their cultural context: issues of method in historical reconstruction. *Feminist perspectives on Biblical scholarship*, ed., by Adela Yarbo Collins.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Centennial Publications.

Fiorenza, Elizabeth Schuessler(1987). *In memory of her, a feminist theological recnstruction of christian origins*. New York: Crossroad.

MacHaffie, Barbara J.(1986). *Her story - women in christian tradi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Swidler, Leonard(1979). *Biblical affirmation of woma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The Social Educational Function for Women in Christianity

Choi, Man Ja
(Sung Gong Hae Univ.)

I. Introduction

The terminology of social education means the education which is practiced out of the institutional school centering the space concept.¹⁾ However, strictly speaking the school education also includes social educational activities. Society began to develop in the wake a lots of changes in social conditions, such as an economy, a job structure, education etc... Those kinds of changes let women be able to escape from the traditional way of life, which has limited women's activities to the domestic area only, then to get involved in lots of different activities. Their lives became dramatically changed than before, and in accordance with such changing circumstance, social education for women was made to adjust women to such social changes. Therefore, social education for women is all kinds of educational activities, which help women to adjust to those social changes. This social education for women should aim at the

1) Korea and Japan used this terminology as same meaning, but other countries in western called it adult education. In Korea Social Education Law promulgated on December 31, 1982 says that the Social education is all kinds of systematic educational activities for the lifetime education of people except the school education.

equal society between women and men. It should basically include a sense of democratic equality and a sense of women's independence by getting rid of, or at least, trying to reduce social prejudice through a improvement of social conditions. Otherwise, women still remaining dependent human beings only adjusting to the social structure established already. Therefor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social education for women needs to give women self-confidence, freedom, and independence of women.

From this general understanding of social education for woman this write tries to examine the function of social education for woman in Christianity. It will reveal how a sense of equality, a sense of women's social consciousness, and a self-independence of women themselves is showed in Christianity. This is the way to understand a view of women in Christianity, because the function of social education can be estimated according to whether those views are liberative or oppressive to woman. The view of women of religion functions as a mechanism to maintain the social view of women. A sexually discriminated view against women in religion justifies a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furthermore, maintains and guarantees this discrimination.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see what is the social educational function for women in Christian by examining the attitude to women in Christianity.

In general, the attitude toward women in Christianity reveals double standards. In the Bible we can see two kinds of attitude of women; one is a positive saying all people equal, the other is negative oppressing women. In Old Testament, Genesis 1:26-27 says "all people are created in God's image." But according to Genesis 2-3 man and woman are created differently, and it seems that woman is inferior and secondary human being. And also it says woman is originator who caused to exist the first-sin in this world by eating the fruit of knowledge. While Genesis 1:26-27 functions liberative power to reform the contradicted society, the story of the chapter 2-3 guaranteed the order of dominator-dominated between man and woman.

From the Gospel in the New Testament we easily find Jesus is radically emancipative to woman, yet there are many sexist and oppressive words in the Epistles. Also, at the beginning of Christianity, it had a contribution to be able to bring

women's liberation and the reformation for the social contradiction established already in the missioned place. However, as it became an institutional church, it gradually changed as a sexist, an authoritarian institution. In the case of Korean church, at the beginning, Korean church propagated equality before God, yet, as it also became institutionalized, like other churches did, it also began to be operated by the patriarchal order and enhance the sexism.

Since the attitude towards women in Christianity has been always understoo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the Bible has been able to function ambivalently to women: On the one hand, it has been used as evidence for woman's liberation, but, on the other hand, has been also used as a source of oppression against women. Developed since 1960, feminist theology has been posed the question: whether the essence of Christianity is patriarchal or not. The feminist theology has been tried newly to shed light on feminist perspective. This paper is going to reveal the following things: First, what was the Jesus', an originator of Christianity, attitude to women, and what the early church's. Second, what was the status of women in the early Korean church as a missioned region.

By examining all those process, this paper will figure out the view of women in Christianity, and discuss the social educational function of this view.

II. Jesus and Women

"Jesus was a feminist"(Swidler, 1979-105) a recent confession represents clearly what is the attitude of Jesus to women. The New Testament based on the Four Gospels reveals such feministic attitude of Jesus. According to the Gospels the teaching of Jesus is beyond the traditional view of woman. Jesus respects the life and rights of human beings and against to the social injustice. He declares that the Kingdom of God is to save the social weaks.

This writer would like to briefly point what was the attitude to women of Jesus.

2) The first, this attitude became obvious when compared with the Jewish Rabbinic culture. Rabbinic culture³⁾ didn't let women study the Scripture and participate in interpreting, saying that 'we would rather burn the Torah than teach daughter Torah'. Jewish male was expected to thank God daily that was not "a Gentile, a slave, a woman" In contrast, Jesus way of thinking is far beyond this culture.

The Bible. in Luke 10:38-42, says that when Jesus came to the village where Martha and Mary, two sisters lived. The older sister Martha was busy preparing for foods. Instead of helping her sister, Mary was listening to his words with other men. So, when Martha complained about her sister's attitude to Jesus, He approves of Mary's interest in intellectual and scriptural matters, and said "she chose the better part." Considering the historical context at that time, when a gender division of labor, which learning the Scripture or discussing was considered as a man's task, and preparing food was considered as a women's task was very secured, the way Jesus respected Mary's choice was such a surprising thing(Ruether, 1975-97, trans., Son Sung-Hi, 1980-93). His way of thinking was beyond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moreover proved that he had an open mind to the woman who chose her task based on what she wanted, rather than based on what was required to women those days.

2) These points suggested here are common view of many of feminist theologians.

3) Jewish Rabbi culture was stricted by patriarchal and androcentrism order. Male only could attended in the worship, whil female separated behind the wall. Of course, women couldn't read the Tora because it was considered to impair the authority of men. Women could not make a sound for a prayer at their table. too. Women should memorize the prayer composed of 18 phrases with children and slaves. Like this, in the Rabbinic Jewish culture, because of the religious reason, men only got the privilege and women were classified as subordinate people like children or slaves. Therefore, in the first letter of Paul to the Corinthians. 14:34, what Paul pointed out about rules regarding women's behaviors, that is, women would be obedient to men, keep quiet must be eventually referred to the tradition of Rabbi. The Old Testament supposed the obedience of women, yet didn't show any rule to order this obedience to women at all. Rabbi Judaism is full of traditional customs and rules that insult and degrade women. Women was described as greedy people, envesdroppers. It said that women were apt to complain, and be jealous.

Jesus also violates the Jewish norm prohibiting men from speaking to woman in public, and talked with Samaritan⁴⁾ woman beside well(John 4:1-42). In spite of she was a low Samaritan and woman, Jesus not only accepted her as equal but also initiates deep religious conversation with her. His disciples were shocked by the behavior of Jesus.

Second, Christian tradition says Jesus has 12 disciples only. But we could find many disciples including women in the Bible. Mark 5:40-41, Luke 8:1-3, Matthew 27:55-56 mentioned women who seemed to be followers of Jesus, and women community. Those women were the ones who broke the Jewish custom those days and followed Jesus along his way of trips. There are active female disciples - Mary Magdalene, Samaritan woman, Martha and Mary, and Mary the mother of Jesus- as well as male disciples -Peter, John, Jacob. Most of all, the recent women theologian Fiorenza(1983: 315-333) has revealed that women followers were the ones who practiced sincerely what Jesus taught, not men followers.

Third, according to the Gospels, Jesus' teaching is deviated from the traditional view of women those days in both contents and forms. He didn't use a male image only, but use the image which can be appealed to men and women both, whenever he made a comparison for self-lesson. When Jesus preached on the Kingdom of God, a essence of his preaching, he compared it to the woman's task. This showed that women's experience become a universal experience of human beings and the criteria for the Kingdom of God. In Luke, regarding the comparison for a persistent attitude towards belief, there was a story of man who went to a friend of his forgetting a loaf of bread in the middle of night. A several phrase behind that, there was also the similar story using a widow(18:1-8). He described God by using the female image before male audience. In Luke 15, He emphasizes God's concern for the losts using the image of a shepherd and a father. At the same time, he compared the woman who looked urgently for the lost money to God. Before the audiences who were mostly

4) Since Samaria was invaderd by Assyria the Samaritan was prejudiced from Jewish people by their mixed blood.

men, particularly Pharisees and Scribes, a dominating class, he compared woman to God.

Fourth, Jesus also rejected the patriarchal custom regarding marriage and divorce at that time. He criticized a kind of law which guarantees only male so that male could do anything in his wishes.(Matthew 19:1-12). In Mark 10:11-12, it is said that not only a wife, but also a husband had a duty for obedience. He also showed the equal attitude to men and women during his healing activities. He cured a lot of sick women such as a hemorrhage woman(Matthew 9:18-26, Mark 5:24-34, Luke 8:40-56), a woman who had suffered for 12 years. According to the Jewish custom hemorrhage treated so unclean sick that the one with hemorrhage was driven out from the community. Breaking this prohibition Jesus accepted and rescued her.

Jesus supports the equality to women and men through his preaching.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ositive view of women of Jesus has come down to us by patriarchal male disciples, we can assume that his positive attitude towards women must have been revealed very strongly.

However, Broton(1985-91), feminist theologian, strongly criticizes the simple contrast like as Jewish women-oppressive and Christian women-liberative. Broton says it is wrong to evaluate the Jewish view of women based on the phrased in the literal norms. Therefore, she says that it is unfair to consider the Jewish view of women as an oppressive without any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and most ordinary lives and circumstances of women at that time. She insists that Jewish women were in fact, much more liberative than they were described in the literal norms, and had a much more active, liberal and independent lives than they were in the Scripture. Also, she says that there were many of woman presidents in the Jewish synagogue in 1-2 century.

Like this, Jesus showed a positive and liberative attitude and taught his followers to live within this opened order to women.

III. The Early Church and Women

1. The Early Christianity - Equal Community to Women and Men

Around 30 A.D, after Christ's resurrection, the early Christianity spread out to the Palestine by the mission activities of Jesus' disciples and to Hellenism world by the apostle, Paul at the same time. Christianity based its origin on the event of Jesus' Resurrection. It is surprising that Bible recorded women as the witnesses of the Jesus' Resurrection. Having a little different expressions all of four Gospels described women as the first finder the empty tomb and delivers the message of resurrection to others. The cultural believed that women could not be trusted as witnesses to the truth. But the Bible chooses women as witnesses of the most important event in Christianity.

The early Christian community included all people of classes, sexes, races, and formed an equal community. The community based on the teaching of Jesus who gave them open order of the Kingdom of God(Mathew 11:17, 21:31, Luke 7:34). After they experienced the different God who loved the weak and stood by the weak and was willing to be a friend of a tax collector and a criminal, they formed naturally a inclusive, an equal community including a lot of members around the early Christian community. If people wanted to be the first, they had to be the last as opposed to the secular value of world. If people wanted to be respected, they had to respect others first. If they wanted to go into the heaven, they had to be like children, and had to be have life servants at the expense of themselves(Mark 8-10). Therefore, women became equal member and active leaders of the community.

Within this equal community, people could be changed totally differently. Because all of them were in the experience of 'Spirit' of God. Those who were full of 'Spirit' were able to have wisdom, and within this 'Spirit', they got an equal relationship. In fact, the early Church didn't divide positions in the church based on sex. The people in this community did their responsibilities based on their different abilities gifted by

God. In this equal community, women worked as capable, liberal state. The II corinthian 5:17 says this totally a new ; "So if anyone is in Christ, there is a new creation..." We are able to see many women in the early church work as followers, apostles, or prophets from Acts and Paul's Letters. In the early church many of women are probably acted as leaders of the church like disciples, apostles, prophets, and teachers. Particularly Mary Magdalene was more prominent disciple who was recognized by Jesus than male disciple Peter. Some early Christian writings which were part of the dominant Catholic tradition gave Mary Magdalene a place of honor. She is described as an "apostle" in a biblical commentary from the second century and also in an account of her life written in the ninth century. Other written works, such as the Pistis Sophia and the Gospel of Mary, emerging from groups that deviated from the dominant Catholic tradition, place Mary in a position of significant leadership in the early church(MacHaffie, 1986-18).

The early church was formed in house church. This implies that women were clearly involved in the spread of Christianity and in the establishment of new congregation which met in private houses. The house churches were crucial to the success of the early mission efforts since they provided support and sustenance to the growing Christian congregations. It is recorded that women provided the facilities for some groups, especially if they were wealthy and prominent members of the community. Acts 16:14, for example, mentions Lydia, a successful businesswoman, who offered her house to the Christian church. And Col. 4:14, "Nympha who had a church in her house."(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verse correctly reads as Nympha not Nymphas). The house of Mary, the mother of John Mark, was also used in this way(Acts 12:12). In Philemon, Paul mentioned our sister Amphia as a outstanding leader of that house church.

It is likely that women participated in the early development of the church to a much greater extent than our sources imply. We must not forget, first of all, that women were included as full members of the Christian communities. In light of the Jewish practice that defined a synagogue congregation by the number of circumcised

males present, this inclusive membership was unusual.(Acts 8:3, 9;2) In the early church women were not subordinative and dependent, rather they worked as leaders. In the first Thesalonian 5:12, Paul asked to the congregation to give same respect to their leaders both women and men.

It could be imagined that women functioned as presbyters in the early churches and baptized and celebrated the Lord's Supper. MacHaffee(1986-24) introduced this situation in detail following:

"The vehemence and frequency with which the teaching and sacramental functions of women are denounced also suggest that these activities may have been going on in some places. By the end of the second century, the writings of theologians and pastors as well as books of discipline and church order repeatedly condemn such activities. The need for repetition may bear witness to the continued failure of such commands,. Manuals such as the Didascalia Apostolorum(a book of church order from Syria written between A.D. 200 and 250) and Apostolic Church Order(a document regulating church practices from Egypt, written around A.D. 300) prohibit women from baptizing or conducting the Lord's Supper. The general message was that women could not speak in the church's public gatherings. Although some leaders permitted women to instruct other women in private and their husbands at home, others forbade women even to write about their faith because this was similar to teaching".

Finally the status and role of women in the early church gradually changed. The early church had set up an androcentric order in the church to exclude women as church leaders, and made new rules based on sex. In the early decades of church history, the "ministry" included a variety of tasks and all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The Holy Spirit, who acted through the community but was not bound by it, gave the gifts needed to fulfill these distinctive services. Gradually church changed the concept of the ministry and established organizational structure, then women were excluded.

2. Expanding Church and Women

It is shown by the confession of baptism of the early community. The early Christian community had the following confession of faith, when people converted to Christianity : "There is no longer Jew or Greek, there is no longer slave or free, there is no longer male and female; for all of you are one in Christ Jesus." Paul showed what the spirit of Christianity was all about by quoting this confession of faith in the letter of Paul to the Galatians, 3:28.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the early Christianity community had a new order as a practical norm, which transcended sexual and racial discrimination. Paul must have been influenced by this rule, since he approved this rule and made people think of this rule as an official rule of Christianity. Compared with order of Jewish at that time, it reveals that how strongly the early Christian community sought for a new order. Jewish men prayed God for thanks for not being born as a gentile, a slave as well as a woman, three times a day.⁵⁾

Although Christianity radically distincted itself from Jewish patriarchal order, it gradually changed its first spirit of equality. Rather Christianity began to accept and compromise the patriarchal order around the world modifying the baptismal declaration in Galatian 3:28. Feminist theologian Fiorenza(1983: 205-235) analyzed this process of modifying of the baptismal declaration(1983). In I Corithian 11:2-16, Paul modified Gal. 3:28 by dropping the last pair words-male and female relationship. So, it became ambiguous th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in Corithian Church. Moverover Paul criticized those women who had no veil on their hair in the ecstatic worship. Using the image of head to condemn those women he said "the head of woman is man." This expression not only makes the imagination the subordinat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woman but also justifies the subordination on women by men with a

5) Men in Greek culture also represent such emotion by using the similar way of expression. These shows how much patriarchal culture dominated that world.

authority of the Canon. Like this Paul modified some phrases to patriarchal element, then Pauline disciples much changed it to patriarchal structures.

The other modification appeared in the Household Codes such as Colossian 3:11, II Peter 2:11-3:12, and Ephesians 5:22 etc which supposed written in 80-120 A.D. These Codes gradually changed to establish the order of patriarchal structure amending the baptismal equal declaration, Gal 3:28. Colossian 3:11 says ; "In that renewal there is no longer Greek and Jew, circumcised and uncircumcised, barbarian, Scythian, slave and free; but Christ is all and in all! Then it continues the next rules on women to ask a patriarchal order. Col. 3:18-4:1 are saying about the rules for Christian households,

"Wives, be subject to your husbands, as is fitting in the Lord. Husbands, love your wives and never treat them harshly.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everything, for this is your acceptable duty in the Lord. Fathers, do not provoke your children, or they may lose heart. Slaves, obey your earthly masters in everything, not only while being watched and in order to please the, but wholeheartedly, fearing the Lord"

These are most explicit Household Codes in the New Testament.

Also in I Peter 2:11-3:12 Household Codes came out again but there is no longer three pairs of reciprocal injunctions, for it only mentions slaves, wives as well as husbands, but not children and parents. Moreover, it stresses primarily the duties of the subordinate members of the household. This discussion begins with a demand for submission to human governors(2:13-17), then exhorts slaves to be submissive even to hard and unjust masters(2:18-25), and asks Christian wives to submit themselves to their husbands, even when the latter are pagans and actively engaged against the Christian community by being disobedient to the word(3:1-6).

We could not clearly find the factor how this modifications and changes happened, but probably there was severe tension between Christian community and wider society. In the case of Corinthian city Paul insists on the "proper" hairstyle for women to distinct Christian worship from outsiders. Also in the minor Asia and Greece-Rome world Christian community needs a appropriate strategy for mission. thus they tried to

modify the first equal declaration without the essential damage. Also the early church gradually transferred its system from the house church to regional parish. At last it became androcentric institution and restricted women's leadership not only marginalizing or excluding but also segregating and restricting them to women's spheres which gradually came under the control of the bishop.

As above, the attitude toward women of Jesus was revolutionary liberative. The early church succeeded this attitude for a while. But in the process of the mission to other world it was modified and changed to adjust around patriarchal society. Finally Christianity became a religion to discriminate and oppress women, asking them to be obeyed mother and keep silence in public. This patriarchal order to women became the Christian tradition, and influenced to the oppression of women in today's church.

IV. Korean Church and Women

1. The Early Korean Church and Women's Liberation

Many of Korean historians believe that the introduction of Christianity to Chosŏn society influenced the emancipation of women.⁶⁾ Chosŏn Confucian society⁷⁾ was very strict patriarchal, hierarchical, and androcentric class society. For Confucian custom has the universal principles as 'honor heaven, low earth' and 'honor man, humble woman', many Confucian values oppressed women: such customs as 'namyo chilse

6) Moon Il-Pyung, as representative, says Christianity recognized women as a being with same soul as men. women could come out the house to attend the church worship. Also women educated in the church and school, and go abroad to study. Moreover they participated economic and social work. (Moon Il-Pyung, 1975: 150).

7) Confucianism concerns ruling principle and emphasized the order to rule. So Chosŏn Confucian society was hierarchical and patriarchal family order was expanded to the society. For more information see, Choi Man-ja,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with a Korean Women's Experience"(Choi Man-ja, 1995: 103-145).

pudongsok'(boys and girls must not sit together from the age of seven), 'cholyolgwan'(the Confucian view of chastity, prohibit women's remarriage), 'samjongiido'(lit the way of the three obediende's: when young, a woman is to obey her father: when married, her husband: after husband's death, her son), 'yopiljongpu'(woman should be followed her husband), 'naeopebop'(a through distinction between men and women, in their practice, the living opaces of men and women were different and their roles were different. Men and women could not sit together facing each other).

On contrary Christianity⁸⁾ showed the new way on the sexuality and marriage to liberate women from the oppressed orders of Confucian customs. Catholicism brought the bud of equality and Protestantism opened the blossom of it. The liberative experiences of Choso'n women could be summarized following.

First, Christianity brought a new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woman. Concerning the Confucian view of women, which thought of them as being only for the production of male offspring to carry on the family name, by saying that both men and women are beings created by God, Christianity stressed that women are personal beings created by the will of God. In Catholic, Kwo'n of the Yuhandang wrote a book 'o' nhaeng Sillok', and she stresses that women are personalities who have received their existence from God, showing that a modern consciousness concerning women had sprouted, one which could not be seen in existing women's educational writings based on Confucian thought, such as 'Naehun' and 'Yo'nono'(Kim Ok Hi, 1983, 45-79). There are many records on the equality between man and woman among the Protestant writers ; In Methodist Newspaper, Choso'n Christian Newspaper(1897, 8.4), they insisted the equality between man and woman based on Genesis 1:26-27, Presbyterian Newspaper(Christ Newspaper January 3, 1901) expresses the faith that the sexes were created equal: "The Lord of Heaven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made all things. The most exalted of these, God called Humanity, the right of

8) It is included both Catholic Church and Protestant Church when this writer say Christianity. To separete both it will be called by each Catholic and Protestant.

humanity and all things. Thus it is right that all things be done without distinction between male and female. Then there will be produced many social leaders." The most interesting insist is from a woman of WhangHe province; "Now, women became Christian and women could eat food at the table with men not in the kitchen."⁹⁾ This explored what was the situation of women in the late Choso'n society. This ethos of the equality influenced not only on the man and women relationship but also on the classism, so a christian woman burned the documents certifying the slave status, liberating her slave and considering the slave daughter and attended church with her slave.(Lee Oo Jung, 1985-89).

Second, Christianity drastically changed the understanding of the sexuality and marriage of Choso'n women. Greatly challenging the existing view of women's lives was Catholic women's religious life perpetual "virginity", and "separate live", organize "women community", and permit "remarriage". Particular perpetual virginity¹⁰⁾ was an enormous challenge to the marriage practices of the time, also to persuade the remarriage of widows took off the bondage of chastity from Choso'n women.(No Kil-myung, 1988-99, 102). This position of remarriage of widows in Catholic church much influenced to the statement of Donghak and KapOo on the remarriage of widows.¹¹⁾ Protestantism also give women a power to be free from their oppressive situation and old customs. Concerning the problem of the sexuality the most big impact on men was the foolish movement concubines. Among men converters it was most urgent thing

9) This words were coted from the collected materials of women ordination by Women Ministers' Association of Presbyterian Church.

10) Catholic Church persuaded and virtured the perpetual virginity and a lots of women devoted themselves to the life of perpetual virginity. In the society strongly asked to follow the husband to die, it was big challenge and women felt a kind of liberation from the old oppressive customs. Confucian criticized this perpetual viginity very strange dogma because according to Confucian understanding Catholic people denied the body gifted by parents.

11) This Catholic insist on remarriage of widows is 37years earlier than DongHak Moveemnt.

to separate their concubine. Liquidating the strife with their husbands due to concubinage and the pain of sijipsari in that strife, there were many examples of women opening up new roads for themselves, taking opportunities to study or doing evangelism.¹²⁾ Of those who had been living as concubines, there were some who, settling the affairs of their present lives, determined to live new, independent ones.

In Particular, movements to abolish the prohibition against widows remarrying, to prohibit the slave trade, to end discrimination between children born of a legal wife and those born of concubine, to oppose concubinage, to abolish state-regulated prostitution, etc., movements carried out by Christians to do away with old practices and furthered a new understanding of women's sexuality and marriage.

Third, Christianity expands women's sphere of activity to areas outside the home. In early Catholic church, participation together by both males and females in secret religious gatherings, including mass, is rightly considered a revolutionary event, given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 which were dominated by rules such as Naeoe Bo'p and Namnyo' Ch'ilse Pudongso'k. This shows an attitude of practicing sexual equality. Furthermore, since most of the women were the wives and daughters of aristocratic families, this demanded great courage in a society governed by the strict rule, 'Namnyo' yubuo'l. It was extraordinary, moreover, that teaching was done to members of the opposite sex(Kim Ok-hi, 1983:II-154). Coming to Korea century later than Catholicism, even around 1900, in Protestant Church, male and female seats were separated by a curtain(Ju Sun-ai, 1978:43-49). When thought is given to this, it is clear how extraordinary was the common seating of men and women in the church and teaching people.

One-third of the 50 graduates Ewha Womens' School participated in social activity(Yoon Hae-won, 1985: 113-123). The church was the public place women to come and organize group activities.¹³⁾ Taking social issues the Church women

12)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case of Jun Sam-duk, Methodiest Christian woman(Lee Duk -Ju, 1991).

13) The first organized group by Church women is Women's Evangelism at 'Nuldarigol

influenced to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Through these activities women realized that women's task is not only to raising children and managing household but also to participate to the historical and national responsibilities. Christian women actively organize and participate to the movement to save nation such as "Song Juk Hae", "Debt Repayment Movement", and "3.1 Independent Movement" in 1919.

Fourth, Christianity stimulated the development and acknowledgment of Women's intellectual and social abilities. From the very beginning, the Catholic church set up a 'yo'hoelangje'(women president-a system of meeting led by women) and women were active as leaders of the church. Mrs. Kwo'n of Yuhandang translated Korean text book. In 1800 Catholic women made 'myundo hae'(women's fellowship group) and 70 members were involved in. 'Chui Hoi'(single women's community) also was organized by womenselves to guide effective life of faith. And there also was a widows' club. The Catholic woman Kang Wan-suk can be considered representative of those who chose an new, ethical life, taught the dogma to the congregation both male and female(Kim Ok-Hi, 1983:1-151-154).

Protestant Church began missionary work through medicine and education. Therefore, it greatly contributed to women's education and develop their intellectual ability. The education through the Bible study also functions to develop women's intellectual ability at same time it gives women a meaning of life.¹⁴⁾ The Bible Women's appearance in great numbers opened up in society the possibility of women taking on social and public roles. The activities of the Bible women are the foundation stone of the Korean Church. At the time, women knowing hymns and the Bible were recognized as the possessors of the newest ideas.(Jung Sae HYun, 1963: 143).

As above, Christianity challenged to the Confucian custom and law of women,

Church' in Pyung Yang. Outside of the church women organized 'Chan Yang Hoi' in 1898 and took social actions.

- 14) "..... The ones who lost their mind to live came to the church to find hope. those who had enduring pain to get sympathy of fellowship. Church show the good way to live and taught the Bible to help young women to educate"(Lee Oo-Jung, Lee Hyun-Sook, 1989: 57).

and showed a new understanding on sex and marriage at the time. Also it suggested a new view of human being as equal, and forced women's life to liberation. Many women came to have autonomous lives and self dignification within Christianity too, and free and liberative spirituality. Also Christianity showed women the way to get a social mutuality with men(Lee Oo Jung). Consequently we could say Christianity functions Choso'n women to have a liberative experiences.

2. Education of Women and Women's Socioal Movement in Korean Church

The most effective essence to liberate women in Protestant Church was the educational activities. Protestant Church began missionary work through medicint and education when it was introduced in Choso'n society. In spite of the society had interested only to establish schools for boys not girls Protestant Church established many schools for girl as same as boys'. Moreover, the Church emphasized women's education and forced to social enlightenment through it. There were a lots number of girls and boys' schools builtd; Jung-sin girl's school in 1885,¹⁵⁾ 732 primary schools(Presbyterian 588, Methodiest 144) in 1908, 15 Presbyterian and 4 Methodiest boys and girls school, 1 university in 1908(Yoon Hae Won, 1985-113). More increased the number of believers and more enthusiasm of education increased, many of children of the believers entered to the school. At last the number of the girl students was around 800 in 1918. As we mentioned above Confucial custom so restricted women in domestic area that Protestant church could not seek a girl student in that situation. The Church started their education for women bringing girls from the orphan institute.¹⁶⁾

15) The first girl school wa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in 1908. So the Protestant Church is 23 years ealier than it.

16) Missionary Scranton started her Ewha education with 7 orphans in 1886. Annie Ellers also started her education 3-4 orphants of Je Joong Won in 1887. Ostralia Missionary(PuSan ILSin School), Nothern Methodist Missionary(Yung Wha School), and Southern Methodist Missionary(Bae Wha Hak Dang) were the same cases(Yoon Hae

The excessive attachment of the Church brought the enlightenment of women in Korean society and produced women leaders to the society. The most representative educational institution of women is Ewha Institution.

The thought of women's education is as following. First, equal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woman. Second education for salvation of the nation. Third education for development women's intellectual abilities(Jung Jung-Sook, 191-194). This thought of women's education also was stressed by the leaders of Kaehwa Thought¹⁷⁾ which was based on Silhak and influenced by Christian Gospel of all people equal before God. Suh Jephil and Yu Kil Joon are most representative persons of Kaewha Thought, and they strongly emphasized the education for women to make equal society and to achieve the prosperity of the nation.

This Christian education for women functioned to stimulate women to get a ability of leadership for patriotic movement and women's social action. Job for women was expanded in the professional and economic field. Women educated by the new education established many of groups to take social actions. In February 1898 women group of upper class presented a memorial to the King 'GoJong' to establish school for girls but nothing advanced. Then women organized a group, 'Soon Sung Hoi,' and established the school for girls, 'Sun Sung.' Further Christian women actively participated to the movement of National Debt Repayment in 1907. People realized that the Nation never could be restored the independent and powerful nation without repaying the vast National Debt to be slave of Japanese capitalism. Most of Choso'n women participated this movement as well as selling ornamental hairpins and rings, gathering rice and economizing. Moreover, women committed to independent movement with men and organized those independent movement groups such "'Song Jook Hoi"

Won, 1985: 114).

17) Kae Wha Thought linked with the prosperity of the nation, and renovating social customs. The hope of Kae Wha Thought was political reform and national independence. This is to insist to have the national subjectivity to be free from the Chinese centerism of past.

and "Ae Kuk Pu In Hoi" which are secret daring to the national independence. At the time most of educational activities were done by Christian institute of women education, and so Christian women was the center of the most intellectualized women in the society. In 1919, the 34th year from the first established school and the 10th year from the first graduates, a lots of intellectual women participated in the diverse work in society and most of them had strong leadership with spirit fo Christianity, patriot, and feminist. Since 1914 Ewha Institute graduated university students then in 1924 the number was 29 person. 13 among 29 became the professors after their study from abroad and others found theirs way into society(Yoon Hae Won).

In 1920's after 1919 Independent Movement, a number of groups sprung out into the society caused by the accumulated power of educated women, and the trends of women's activities had been changed from the patriotic to enlightenment movement(History of Korean Women). For all above the most influential power was from the Christian education for women. The representative educational institution for women in Christianity is Ewha Women's University today.

We could evaluate that Christianity did liberative function of women in the Choso'n period as mentioned above. Christianity educated women to be a equal being with the image of God, independent subjectivity, and a social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Christian educated women had mission for the enlightenment movement for Choso'n women of illiteracy at the same time the independent movement to end the colonized history under the Japan. Women cultivated their ability to be able to take social issues having historical consciousness through Christian education. Consequently they appeared as social group leaders to refor the society. By this Christian education women in the church have feminist consciousness and have been struggled to obtain their rights in the church stressing getting women's ordination since 1920's till the present.. Also Women's movement changing women's lives has been succeeded in the human rights' movement in 1970-1980's, and expanded to 'life-giving' movement in the era of ecological crisis. Christian women was socialized and appeared as a leadership group in the society by the influence of Christian education since the end of nineteen

century.

3.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Church and Women

— The Establishment of the Structural Power of Church and Discriminating against Women by Fundamentalist Theology —

The Korean Church was institutionalized in 1907, and established the hierarchical order classifying God-male clergy-male laity- female laity by the male centered clerical system. Women was excluded from the ministry, and seriously differentiated in the grade of wages and the roles(Lee Oo-Jung, 1985: 65-73). Moreover they were treated impersonal to stimulate women evangelists to get anger.¹⁸⁾ The Christian Church already collapsed in the ethic of equality instead of setting up the classified order, gradually changed to the oppressed religion of women. The element to make Korean Christianity transferred from the liberative to oppressive on women is Confucian patriarchal order and western fundamentalist theology in Christianity. The fundamentalist theology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 are the elements functioning the most in the oppression of Korean church women. The characters of the fundamentalist theology are the principle of standardization, absoluteness of the truth, adherence of patriarchal family system, and dominative structure and values. Therefore, there is no potential power to liberate women within fundamentalist theory. Christianity naturally became a patriarchal religion interpreting the scripture by those characters of fundamentalist theology.

This fundamentalist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Bible vastly influenced to justify the exclusion of women from the ministry. In 1933, Women started The struggle

18) The impersonal treatment given toward women evangelists in the Protestant Church explored the oppressive view of women in the church at that time. Chun Chung-Kil, woman evangelist, strongly advocated the improvement of women minister's conditions as following: 1. Respect the personalities of women evangelists. 2. Recognize the intellectual abilities of women evangelists. 3. Let us give to women evangelists authority over their work(Lee Oo-Jung, 1985: 66-73).

for women's ordination, and debated the theological hot issue in 1934. Rev. Kim Chun-Bae, Sung Jin Church minister, stood on the side of women and interpreted Bible by the methodology of historical criticism saying, "To restrict women's role of teaching is just a old custom 2000 years ago in a small Corinthian city, not an unchangeable truth"(Christian News Paper, Num. 977). On contrary standing fundamentalist theological position Rev. Park Hyung-Yong said that " Paul's instruction, 'a women must be quiet in the church' was just the practice and precept of one region 2000 years ago, not unchanging truth, and so it never be permitted women's ordination." He explored him a fundamentalist by himself. He recognized women's work of services and heartedness as good as in the Bible, but teaching of church structure within church is men's work by God.

As mentioned above, we could find some conclusions as following; first, for a fundamental theology justified the oppression women by the authority of the Bible, there is no way to escape the oppression of women within fundamentalist theology. It believes all of the words in the Bible are from God and transcended absolutely. Accepting Biblical words as a first principles the Church influenced the same view of women to the society. Although Christianity greatly contributed women's liberation, but standing on the position of fundamentalist interpretation of the Bible saying "The head of Church is Christ and the head of woman is man," Church reordered hierarchical system and high estimated the view of subordinated women in Confucian society. Even Christianity presented new ethics to cut the feudal chain but it restricted and reordered itself within the old view and custom of women in feudal society. The basic reason was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by the fundamentalist theology.¹⁹⁾

According to the estimation of social educational function for women, the

19) Kim Jung-Su says, although the reason of the oppression on women in the Christian Church is the patriarchal interpretation of the Bible as Canon, but there is another important reason that the early Korean Church(Protestant) had their model of western women to liberate Korean women from the old custom. Therefore, the view of women of Korean Church is limited within the grade of a view point of the western patriarchy(Kim Jung Su, 1988: 70).

fundamentalist theological interpretation functions contrary to reform the society to be equal between man and woman, and expand the spirit of democracy. Women is shrinked by the power of the institutionalized church, kept in dead their abilities. With a religious justification women was guaranteed their inferiority and secondary position as subordinative being and oppressed their freedom, power, and liberation. Further religion asked women with subordinative spirit. At last women lost their original images created with God's Image.

V. Conclusion

As above we realized Jesus was radically liberative toward women, and the early church formed the equal community between men and women beyonding Jewish Rabinnic patriarchal customs. By the church was institutionalized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o wider society church gradually accepted the past patriarchal order compromizing with the order of around the world. Eventually church modified and changed their first equal declaration. Such phenomenon had happened in Korean church too. At last we exactly find the Christianity has double standards in its attitude to women, on one side very liberative on the other oppressive. So Christianity functions to oppress women as well as to liberat them. It is the tasks of today's Christian that make Christianity to function to liberate women interpreting and studying the Bible with a feminist perspective. But feminist theology excluded from the institutional church because it radically try to succeed the spirit of equality of Jesus and the first church. Therefore, This writer suggest that Christian Church have to reform itself and opened men should participate in this reform program having solidarity with women. Then there liberative church to women will be much expanded.

〈 References 〉

- Kim, Ok-Hi(1983). *The history of catholic church women I, II*. Masan: Korean Nun's Association, Jang Sang Association
- Kim, Jung-Soo(1988). *A study of the equality between man and woman in the initiative group of Dong Hak and Christianity in the end of Dai Han Nation*. Thesis of Master's Degree. Seoul National University.
- Nam, Myung-Hi(1991). *Women in Paul's Age. Feminist Theology participated together*. Dehan Ki Dokkyo SuHoi.
- No, Kil Myung(1988). *Catholicism and the social change in the late of Choso'n*. A Study Centre of Korea National Culture.
- Moon Il Pyung, trans., Lee ki Baik(1975). *Hoamsa nonsun*. Jip Mun Dang.
- Yoon, Hae-Won(1985). *Christian schools and education for women. Women, awake, rise, and sing*. The Committee of Cetenial Memory in Korean Church.
- Lee, Oo-Jung(1985). *Traced of 100 years of Korean christian women*. Seoul: Min Joong Sa.
- Lee Oo-Jung, Lee Hyun Sook(1989). *The history of 60 years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women*. Association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Women.
- Jung Sae-Hyun(1963). *A study on the women's movement under the Japanese coloninations - Related in the national movement*. Study Centre of Asia Women. Soook Myung Women's University.
- Ju, Sun Ai(1978). *History of presbyterian church women in Korea*. National Women's Association of Presbeterian Church
- Choi, Man-Ja(1995). *Interpretation of the Bible with a Korean Christian Women's experience. Bible and feminist theology*. Korean Association of Feminist Studies ed.
- R. R. Ruether, trans. by Son Sung-Hi(1975). *New women new world*. Modern Thought Press.
- Brooten, Bernadette J.(1985). *Early christian women and their cultural context: issues of*

method in historical reconstruction. *Feminist perspectives on Biblical scholarship*. ed., by Adela Yarbo Collins.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Centennial publications.

Fiorenza, Elizabeth Schuessler(1987). *In memory of her, a feminist theological reconstruction of christian origins*. New York: Crossroad

MacHaffie, Barbara J.(1986). *Her story - women in christian tradi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Swidler, Leonard(1979). *Biblical affirmation of woma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